

第61回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
本會議會議錄

第3號

城北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7年5月29日(木) 午前11時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2.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都市가스配管調査特別委員會活動期間延長案

附議된案件

1.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朴景錫議員外8人 發議)..... 1面
2.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都市가스配管調査特別委員會活動期間延長案(都市가스調査特委員長 提案) ... 2面

(11時01分 開議)

○議長 趙基燦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局長 李東湜 사무국장 이동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각, 위원회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지역개발위원회에서는 청원인 김남섭씨의 21인이 고윤근의원의 소개로 제출한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제도개선 청원심사건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도시가스 배관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특위활동기간 연장안을 위원회 안으로 발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성북구청장으로 부터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 2,900만원이 증하였다는 제5차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基燦 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1.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朴景錫議員外8人 發議)

(11時03分)

○議長 趙基燦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듣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승로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運營委員會幹事 李承魯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이승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박경석의원의 여덟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지난 5월 24일 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위원회 소관사항에 기획실 소관사항을 신설하고 3실 그러니까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을 삭제코자 하며 지역개발위원회 소관사항으로는 도시정비국을 도시관리국, 건설국을 건설교통국으로 상정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기구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회의 위원회 조례를 소관사항에 맞도록 신속히 개정하여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基燦 운영위원회 이승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만 본 안건은 우리 동료의원이 발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의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하는 이 있음)

네, 안돈수의원님.

(○安敦洙議員 의석에서-취소하겠습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都市가스配管調査特別委員會活動期間延長案(都市가스調査特委員長 提案)

(11時07分)

○議長 趙基燦 다음은 도시가스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연장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한 도시가스조사특별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가스조사특별위원회 이용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가스調査特別委員會委員長 李龍燮 존경하는 성북구의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의회 도시가스배관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섭의원입니다. 성북구의회 도시가스배관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북구 도시가스배

관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1997년 5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사위원회에서 도시가스배관 불법 및 부실시공 현장신고접수를 받은 결과 '97년 4월말 현재 19건이 접수되었으며 현장민원으로 7건이 접수되어 총 26건을 1997년 5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3일간 현장을 비파괴검사로 심도 측정을 실시하였던바 문제점이 있는 현장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문제있는 지역은 굴착등을 실시하여 확인할 예정이므로 기간연장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도시가스배관 불법 및 부실시공 현장신고 접수실적이 부진하여 1997년 3월 26일부터 3월 28일까지 2내지 3명을 1개조로 3개반을 편성하여 우리 구 30개 전 동을 지도방문한바 대부분의 동사무소에서는 신고업무의 중요성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신고창구 개설 등 업무전반에 미흡한 점이 발견되어 업무 철저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특히 본 위원회 활동기간 중 정릉3동 683-1 금잔디유치원 앞 주민 이정신씨가 신고한 도시가스관 매설시 하수관을 관통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시공업체인 극동가스회사가 신고에 의한 현장답사 후 사실로 인정되어 1997년 4월 20일 하수도관을 하월하여 재시공한 바 있으며 장위2동 76-172앞 도시가스배관도 신고내용이 유사한 지역을 시공회사인 한진건설 도시가스회사에서 1997년 5월 27일 재시공하는 현장을 본 위원도 입회한 일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저희 위원회 안 대로 연장해 주신다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연장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도시가스배관에 관한 성북구민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민원이 야기된 지역은 민원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회 활동이 종결되면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라옵건대 저희 위원회의 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에서 발의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성북구의회 도시가스배관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운영협조지침 11페이지에 보면 가급적 6개월 이내로 규정이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 3호 2항에는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측정결과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趙基燦 이용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제십니까?

(「여기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권혁기의원님 나와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赫驥議員 시민복지위원회 의원 권혁기입니다. 1대 4년, 2대 2년 도합 6년 동안 시민복지위원회에 몸담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민복지 분야에 도시가스 지금 현재는 산업환경과에 속한 이 문제가 성북구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올 것이다해서 조사특위가 만들어진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동감했기 때문에 특위 설립하는데 동의한 사람의 한사람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의견으로서는 시민복지상임위원회와 특별조사위원회하고는 성격상 좀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의원님들이 시민복지를 깊이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여기에 나왔습니다. 도시관련 분야 구청장 업무의 위임 사항이 '97년 2월달에 지침서가 성북구청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 11월 22일날 신설된 사항입니다. 도시가스산업법 제45조 시행령 제15조 권한의 위임, 위탁 등입니다. 업무 관리체계는 도시가스회사, 행정 구청, 서울시, 가스안전공사 이렇게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소규모적인 것 밖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서울시장의 권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어서 시장의 지도감독은 공급시설, 공급시설은 전부 시장의 권한입니다. 배관, 정압기, 우리 구청장님은 소규모적인 것 사용자배관 가정집을 얘기하는 거죠. 특정가스배관, 정압기

사용자 시설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관장하는 것이 정압기가 633개소 구청에서 특정가스정압기 42개, 지역정압기 25개 다시 말씀드리면 아파트에 들어가는 또 구청에 들어가는 것 이런 소규모적인 것은 구청장님 위임 사항입니다. 아파트도 동별로 정압기가 따로 있습니다. 이번에 돈암동에서 붕괴사고난 데 그 동에 정압기가 붕괴와 동시에 정압기가 막혀서 사고가 없었습니다. 구청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소규모적인 것 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성북구의회에서 작년 10월달에 특별조사위원회가 상정돼서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차 조사위원회가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동절기에는 12월 1일부터 2월 28일 내지는 29일까지 굴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달 동안은 1차 유명무실하게 지내고서 2차 특별조사위원회를 연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절기에는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도로굴착을 특별한 일 아니면 굴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서 조례특위를 만들었는지 모르고 만들었는지 이해가 덜가요. 도시가스 산업법 권한위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것이 공급시설 설치, 공급시설 가정에 설치, 승인 그다음에 시공자의 등록관리, 신고수리, 개선명령, 이런 등등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2차 우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만, 성북신문이 11월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발간할 적 마다 신고접수를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상회에 3번에 걸쳐서 나갔습니다. 반상회에 3번 나갔어요. 북부신문에도 또 나갔습니다.

또 특별조사위원들이 동별로 나눠가지고 접수창고 확인한 바있고, 동장님 면담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고작 하자 있다고, 미심적다는 것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따라나 19건입니다. 19건에 5월20일부터 22일까지 가스위원님들하고 사업자하고 공무원하고 조사한 것이 일부 확인되고 일부는 아직 확인이 안된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류를 전부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그다

음에 동별로 월보고를 하계끔 공문이 나갔습니다. 또 의회에서는 의장님 명으로 협조요청 공문을 각동별로 내보냈습니다. 본의원이 이 서류를 전부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민이 불안하다면 신고안할리가 없고 또 신고하면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업자와 협의 안할 일 없습니다. 이것이 접수대장입니다. 동사무소에 보고올리는 겁니다. 매달 22일까지 올리게 되어있죠. 또 안암동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까만, 1대때 한춘자의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민복지위원회에서 업체와 같이 조사를 나간 적이 있고, 보문동 시장에는 2대때 조사를 나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불진대 과연 조사특위에서 상임위원회에 이제는 그만하고 넘겼으면 어떻겠느냐, 시민복지에 넘기면 어떻겠느냐,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사특위는 다른 상임위원회와 복합된 문제를 가지고 같이 조사를 하기위해서 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되, 될 수 있으면 6개월이상을 넘기지말아라 하는 지침서가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는 시행령인가 무엇으로써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민복지위원회는 그 분야의 상임위원회니까 조사한 그 내용을 미비점과 보완점과 잘못된 점을 전부 거론해가지고 시민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본의원은 조사특위에서 넘겨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돈암동 붕괴사고에 아직 지역개발에는 조사특위라는 말씀 나오신 분 없습니다. 시민복지는 정릉3동 복지회관 조사특위를 2차에 걸쳐서 조사한 적이 있고, 개선명령을 지금까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시민복지위원회에서 그러니만큼 현명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조사특위를 연장보다는 시민복지에 문제점과 모든 것을 서류로 만들어서 넘겨주시고 이 가스문제 조사특위는 7개월동안 했으니 더 이상 연장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의원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趙基燦 권혁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柳興先議員 의석에서-의장 방금 말씀드린데...)

토론을 하시겠습니까?

(○柳興先議員 의석에서-예)

유홍선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십시오.

○柳興先議員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자리에 토론에 나올려고까지는 생각안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토론의 무슨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되겠는가 연구해본 것도 없이, 지금 방금 동료의원 권혁기의원께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특위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여러분 앞에 우리 동료의원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1대때 안암동을 특위위원회에서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제가 거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로 1대때 잘했다고 한다면 2대때 저희들이 동네에 나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제가 사진을 근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다 돌려드릴테니 한번 보십시오. 1대때 즉 말하면 이것이 '92년도에 했을 겁니다. '92년도에서 '94년도 사이에 했고, 이것도 그겁니다.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입니다. 형식적으로 특위를 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확인하고 그래가지고 특위활동을 제대로 해야 우리 50만 구민이 발뻘고 잠잔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진을 여러분한테 우리 사무국직원한테 해서 보여드릴테니까 삼을 제가 없어 놓았냐면 심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삼을 없어 놓은 겁니다. 심도 한번 보세요. 이게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특위해서 우리 안암동에 가서 이것을 했더니 지난주 토요일날 가스 극동가스에서 통친회장 주민들 입회하에 이것을 감쪽같이 정상으로 다시 재공사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것이 본관입니다. 바로 이 밑에가 상수도 150밀리 관이 지나갔습니다. 150밀리 관이 지나가는데, 만약에 상수도 관이 파열이 되어서 그 수압에 물이 솟는다면 가스관이 건더내겠습니까? 절대 못건더냅니다. 분명히 이런 것은 상수도관하고 가스관 사이에 강판을 넣어서 보완을 해줘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러한 자체를 안했기 때문에 이것이 파열되어서 가스가 샌다고 해서 금방 냄새가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누적이 되고 누적이되어서 폭발되었다

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겠습니까? 가스특위 위원회 이번에 여러분들이 한 것이 뭘했는가 하는 것을 궁금증을 가지실런지 몰라도 우리 을구쪽에 가보니까 뭐가 되었느냐면 심도가 0.4, 0.4 이런 식으로 많은 것을 저희들이 발견했습니다. 또 우리 갑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이것이 보도가 되고 우리 구민이 홍보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거는 차차 많아질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이 가스특위는 연장해서라도 서울시나 다른 구까지는 생각못하셨습니까만 우리 성북구만이라도 발뺌고 안식처에 잠잘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개선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던 것입니다. 두서 없는 말 제 나름대로 짜임새도 없이 말씀드린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이 사건을 지금 우리 여기 사무국직원들한테 한번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의원들한테 다 돌려 드릴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파악하시고 과연 가스특위가 왜 구성되어서 앞으로 연장해서라도 이런 것은 분명히 밝혀나가야 된다고 본의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돌려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議長 趙基燦 유홍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金甲濟議員 의석에서-의장, 토론입니다.)

김갑제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甲濟議員 우선 도시가스특별위원회 이용섭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아쉬워했던 부분이 도시가스배관정산특별위원회라고 그래서 그러지말고 도시가스특별위원회로 좀 했으면 생각이 있어서 여기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도시가스가 오늘날 우리 국민에게 경제적으로나 생활편의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나 다같이 그것을 빨리 공급 받고자 하는데 그 받고자 하는 수요자들이 공급을 못받고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모로 보더라도 정책적으로 보나 지금 심각한 환경 공해 중 대기오염을 더는 쪽에서도 이것이 빨리

되어야 되는 것만은 분명한데, 지금 각 도시가스사들은 공익보다는 수익위주로 공사하기 때문에 지금 상당수가 도시가스공급을 받고자 하더라도 못받고 있는 실정을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구해보면, 조사하겠다는 것이 두달 석달, 조사하고 나면은 수익성이없으면은 거기 난공사 지역이어서 어렵습니다라고 구구한 핑계를 대면서 오늘날까지 그렇게 요구하는 주민들 그 수요자에 대해 공급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왕지사애 우리가 특별위원회가 발족되었으니만치 한번 조사해서 가지고 우리 성북구가 극동 가스하고 한진가스가 관할하고 있으니 직접 사업본부장을 만나 가지고 이것 시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가스가 얼마나 권위적으로 군림했느냐 하면은요 지금은 많이 시정되었습니다만은 모든것이 자기들이 말이 법이 되어 버려요. 그래가지고 지금 잘 모르시는 수요자들은 그냥 피해만 당하고 있습니다. 아주 비근한 예로 내가 도시가스 보일러를 쓰다가 교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미 다 안전검사 공급지시 받아서 도시가스를 쓰고 있었으니까 그 보일러를 갈으면은 그대로 써도 관계는 없으리라고 생각은 되는데 또 그것도 안전을 위해서 검사한다는 것 까지도 좋아요. 그런데 이 검사하는 데서 부당한 돈을 받고 있어요. 왜 받고 있느냐, 이미 보일러 시공업자가 다 갖다 가스 연결해서 지금 가스 열면 쓰게 되어 있는데 안전검사한다고 해서 사실은 배관비까지 받아요. 자기들이 공사도 안했는데 시공업자가 해 놓은 것을 배관비까지 받아요. 자기들이 공사도 안했는데 시공업자들이 해 놓은 것을 배관비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것때문에 제가 여러번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시정이 안되어요. 이거 대단히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검사비 6,000원은 검사를 안했는지 했는지 확인을 못합니다. 그런데 검사할 수가 없어요. 일단 보일러 시설 다 해 놓으면은 검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안전을 관리하고 있는 측면에서 검사해야 되겠다 해서 검사비 6,000원을 받아 먹는 것은 좋지 어째서 배관도 안한 배관

비를 만 몇천원씩 받아 먹느냐 이겁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리자면은 보일러 시공협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서 그분들하고도 한번 잘 문제를 발췌해서 가지고 이왕지사이면은 그런것까지라도 이번 차제에 포함시켜서 개선해 주셨으면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趙基燦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갑제 의원님의 토론은 찬성토론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서 도시가스 배관 조사 특별위원회는 도시가스 수급관계에서 제반문제를 좀 다뤄주셨으면은 좋겠다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반대 토론하실 분 한분만 더 토론을 받도록 하게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면은,

(○金壽榮議員 의석에서—의장님,)

네.

(○金壽榮議員 의석에서—찬성토론 한번 하시면은 안되겠습니까? 한,두번이 아니라 열두번이라도 의장님이 발언 주시면은 하는 것이고 거기는 의장아니니까 가만히 있어야죠. 김수영이 얘기하는데 자꾸 ... 발언권 주십시오.)

네. 김수영의원님, 지금 찬성토론 세분이 나 했는데 꼭 하시고 싶으면은,

(○金壽榮議員 의석에서—열사람이라도 할 사람이라도 제가 자주 나가는 것 아니니까요.)

네. 수용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金壽榮議員 김수영의원입니다. 권혁기 동료 의원님의 그 해박한 행정 지식과 논리 정연한 사실에 대해서 우선 서두에 존경예념을 표하면서 본의원의 말씀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지금 권혁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전부 다 옳습니다. 업무 체계에 대한 책임 한계 이런 등등을 조목 조목 전부 대셨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일에 추진에 대한 능률성과 효율성보다는 사고가 발생했을때 책임 소재를 밝히는데 권혁기 의원님 말씀이 가장 올바로 맞아 들어가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사고가 났을때 책임소재 사실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엄청난 피해를 유념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도시가스에서 브리핑 할 적에 이것은 도시가스 특위에서 브리핑하는 것을 본의원이 같이 특위위원들하고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금년안에 매핑 시스템을 완료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하에 가스 배관이 매설되어 있는 곳이 어느 곳에 어떤 형태로 심도가 어떻게 매설되어있고 형태가 어떻다 하는 것을 매핑 시스템이라는 이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을 해 가지고 그것을 제작을 지도화 해서 놓고 어느 곳에 대한 버튼을 딱 누르면은 화면상에 나와 가지고 도시가스의 배관 상태를 일목요연하게 알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까지 되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분명하게 제가 기억하기는 금년 12월말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 분들의 말씀이 일오작착이 없이 12월말까지 되기를 바랍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 작업이 예산상 또는 작업의 난이도때문에 늦어질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수동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 체계하에서 도시가스 특위에 운영과 활동이야말로 더 할 수 없는 매핑시스템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언제 어느 곳에서 지금 현재 그런 사고가 날런지 또 모릅니다. 당장 어떤 일이 일어 났을때 부랴 부랴 서둘러서 호떡집에 불난 것 처럼 무슨 특위를 구성하네, 조사를 하네 하는 것 보다는 사전에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견되는 사고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우리는 범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소관 업무의 관리 문제 시민복지로 까지로다 소관 사항을 넘기라고 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도시가스 특위라는 특별위원회 자체를 없애자는 것 보다는도 업무의 중요성은 인지하시는데 네가 하는 것 보다 내가 속한 시민 복지에서 하는 것이 좋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일은 누가 하든 값이 하든 율이 하든 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간접적으로 권혁기의원님께서 시인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도시가스 특위가 배관 특위가 계속

해야 할 것이나, 시민복지위원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도시가스 특위에 대해서 이미 노하우가 도시가스 특위위원들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김갑제 의원 말씀의 발언에 저는 동의합니다. 하나의 에피소드를 들겠습니다. 극동 도시가스에 전화를 할 적에 성북구의회 김 아무개다 하는 얘기를 안했습니다.

도시가스에 관한 사항을 할 때는, 구의회 도시가스 특위의 김 아무개다 이렇게 했습니다.

척척 바꿔줍니다. 척척 바꿔 줘요. 예를 들어서 물론 구의회 누구다, 뭐 지역개발위원회 누구다, 아니면은 시민복지위원회 아무개다 해도 그 분들이 전화는 받습니다. 그런데 자기에 영업에 관계된 사항이고 도시가스 특위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 없으면은 어디에 계십니까? 전화 번호를 메모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음에 호출이 오든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미 눈에 안 보이게 아까 도시가스 특위에 노하우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더 하나 첨가하는 것은 확실히 도시가스 특위에 저는 장위3동에서 몇건을 해결한 적 있습니다. 그것은 성북구의 김수영이라고 안하고 도시가스 특위에 김수영이라고 해서 했습니다. 효과가 있더군요. 그렇다면은 김수영이를 비롯한 도시가스 특위 몇몇 사람만 예를 들어서 업무상 그렇게 이익을 보고 피알의 효과도 얻었는데 그러면은 나는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이나 하는 분이 계시다면은 여기서 하나 밝혀 두겠습니다. 저는 좀 해 봤으니까 김수영개인은 도시가스 특위에서 용퇴할 용의가 너무나도 100%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용퇴하면은 그 자리에 권혁기 의원님께서 들어 가시는 다른 분이 들어 가시는 그것은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특위가 존속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릴려고 이렇게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예비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에 이 도시가스 배관 특위에 연장 문제에 대해서 당위성은 이미 실증이 되었습니다. 그 실증은 권혁기 의원님의 발언을

통해서 실증이 되었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현명하신 판단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基燦 네, 김수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찬성과 반대 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로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 표결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시죠?

(「네」하는 이 많음)

그러면은 재석의원을 확인해 주십시오.

(재석의원확인)

(장내소란)

진정해 주십시오. 조용히 해 주십시오.

지금 재석의원이 26명입니다. 먼저 도시가스 특별위원회의 조사기간 연장을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 없습니다.

다음은 기간연장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리십시오.

표결결과 반대없이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모두를 마쳤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45分 散會)

○出席議員 42人

金 南 孝	鄭 昌 萬	丘 在 永
尹 弘 老	李 龍 燮	金 珉 奭
安 傑 瑒	金 壽 榮	李 承 魯
趙 基 燦	羅 光 洙	柳 成 烈
崔 東 煥	李 鍊 垞	金 振 權
金 鈴 基	俞 鎭 武	金 榮 植
辛 在 福	朴 時 俊	李 大 一
高 允 根	徐 榮 振	徐 化 錫
安 敦 洙	金 光 植	權 赫 騏
尹 晚 丸	吳 榮 作	柳 興 先
宋 夏 星	金 順 權	洪 性 溱
朴 景 錫	任 泰 根	申 宗 鉉

文	京	周	金	東	殷	許	東	翼
崔	桂	洛	金	甲	濟	崔	哲	模

○參席專門委員

專	門	委	員	金	鎮	永
專	門	委	員	崔	石	根
專	門	委	員	林	洛	吉